

색채특성의 융합에 대한 연구

진 연¹, 서보양¹, 김원석^{2*}

¹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박사과정

²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교수

A Study on Convergence of Color Characteristics

Chen Juan¹, Boa-Liang Xu¹, Won-Seok Kim^{2*}

¹Dept. of Formative Arts Design, Graduate School, Kongju University, Doctoral Student

²Dept. of Formative Arts Design, Graduate School, Kongju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하나의 예술 작품에서 표현되는 정서적 분위기에는 그 작품 자체의 구조적 상황을 묘사하여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색채로 표현되는 것이 담겨 있다. 여기서 색채적 특성은 기쁨, 슬픔, 만남, 이별 같은 감성은 물론 구성의 무거움과 가벼움, 느리거나 빠름 등을 그림에 반영한다. 또한 색채표현의 대비, 조화, 색채의 강렬함, 수수함 등의 시각적인 향연을 통해 관람자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색채특성의 융합연구는 그림의 절대면적을 차지하는 색역(color gamut, 色域)이 주된 역할을 하고 그 밖의 다른 색들은 이 색역의 조영하에 빛을 발휘하는 것에 관한 연구이다.

주제어 : 색채융합, 색역, 색채대비, 색채특성, 회화 정서

Abstract For an artwork, color, shape and structure are key factors to create emotional atmosphere of the work. And it is fair to say that color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 work. The tone of color reflects the joys and sorrows of the picture and the severity of the work's plot. The audience is to be attracted by colors' harmonious or passionate in this visual feast. Fusion controlling of color tone is mainly determined by color gamut that accounted for the vast area of the picture.

Key Words : Color characteristics, Color gamut, Picture emotion, Merge, Colorposition

1. 서론

대자연에서 색채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늘, 초원, 붉은 꽃, 초록 잎 등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인간이 느끼는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것에 기인될 수도 있다. 즉 색은 자연과 인간의 융합공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1].

사람들이 색의 존재에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식이나 느낌을 색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

만, 화가는 창작과정에서 색채의 특성과 융합을 더욱 민감하게 느껴야 한다.

2. 본론

색채는 색을 띤 빛의 산물이다[2]. 다른 빛이 각기 다른 색채를 만들어낸다. 17세기 초 일부 물리학자들이 색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뉴턴(I. Newton)은 백색광

* Corresponding Author : Won-Seok Kim(wskim1188@naver.com)

Received July 23,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August 24,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에서 굴절되는 7가지색(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을 분류해 냈다. 17세기말에 이르러 색채의 영향과 색채의 이론 연구가 보편화 되었다. 색채이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자연에 색융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다.

2.1 중국과 서양 회화의 색채융합연구

자연에는 여러 종류의 풍경들이 통일된 대기 안에 있으며 여기에서 색채는 대비되고 또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광원색(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의 영향으로 사계절이나 시간 등에 따라 각각의 대상들이 서로 다른 색의 특징들을 드러낸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른 아침과 저녁, 그리고 특정한 순간이나 환경은 각기 다른 색채 감각을 보여준다[3].

오래전부터 중국의 화가들은 이러한 자연적이고 다양한 현상들의 차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려왔다. 원대 화가 황자구의 산수화는 그 특색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문언은 《도회보감》에서 “우산의 아침과 저녁의 변화, 사계절 안개의 기운을 탐구하여 마음에 담은 풍경이 그림으로 완성 되었다”라고 서술한다.

송대 화가 광희는 자연에 대한 연구를 중요시 했는데 그는 사계절의 특징에 대해 느끼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감정을 “봄산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미소와 같으며 여름산은 푸르고 싱싱한 물방울과 같고, 가을산은 밝고 깨끗하며 마치 치장을 한 것과 같다. 겨울산은 어둡고 음산하여 자는 것과 같다”고 서술했다[4]. 화가가 각기 다른 색조로 사계절을 묘사한 것에서 우리는 그의 매우 예리한 관찰력을 느낄 수 있다.

화가의 눈에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단순히 냉정한 관찰기록이 아니라 정서적 표현이며 객관적 자연과 주관적인 감수성의 융합통일인 것이다.

클로드 모네(Claude Monet)는 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로 동일한 주제로 하루 중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장면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교차하는 빛과 색의 화려한 교향악을 그려 내었다. 그의 색채와 감성의 융합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매 그림마다 모두 독자적인 풍격을 이루고 있다.

모네의 《건초더미》 연작은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빛을 신중하게 관찰한 결과이며 빛과 공기의 흐름을 조화 시킨 것이다. 이후 이러한 방법으로 포플러

나무 연작과 루앙 대성당의 연작을 그렸다. 끊임없이 태양 빛의 변화와 굴절을 연구하여 이른 아침 투명한 보랏빛에서 일몰시간의 주황, 파랑에 이르기까지 대자연의 다른 색채 특징을 표현했다. 그는 연구실 밖에서 빛의 변화를 연구한 진정한 실험가이며 사물과 화가의 시선 간에 나타나는 풍부한 색채의 융합, 조화로운 색채의 아름다움을 구현할 수 있다[5].

2.2 색채의 면적과 색역(色域) 성질

한 폭의 좋은 회화 작품은 하나의 통일된 색채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통일은 색채의 밝기상 색상의 유사성과 상호 융합일 뿐 아니라 구도상 서로 다른 색역(color gamut, 色域)의 신중한 배치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즉 그림 안에서 모든 색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화가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통일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그림의 색채 융합의 제어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색채의 불균등한 분포, 색역 면적의 다양한 크기가 그림에서 일으키는 작용은 각기 다르다. 그림의 느낌을 제어하는 것은 주가 되는 색채의 집합이다. 이 주된 색채는 기타 다른 색채들을 이끌어가며 주된 색채의 영향 하에서 밤하늘의 별들처럼 매혹적인 빛을 발할 수 있다.

2.2.1 색채 특징과 색역 면적

색채의 면적대비는 3가지 요소 즉 색역 면적, 형태, 위치를 가지고 시각적 감각에서 색채의 융합 특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근현대 채색화가들의 색채면적 대비의 사용은 그림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색채로 그 특징(주된 분위기)을 삼는데 이것은 작은 면적의 색역과 대응하거나 대비 또는 호응하는 색채면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6]. 하나의 그림 안에서 서로 다른 감정을 색채로 표현하기 위해 어떤 화가들은 작은 면적에 순수한 색을 배제하고 큰 면적에 부드러운 색상을 사용한다. 또 다른 화가들은 큰 화폭을 색역으로 나누어서 그리는데 서로 다른 면적으로 색채를 창작한다. 러시아 화가 니콜라스 데 스타알(Nicolas de Stael)[7]은 불규칙한 기하학적인 색역을 화폭에 배치하고 회색 안에서 한두 가지 눈부신 색을 부각시켜 두껍고 무거운 가운데 따뜻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차분함 가운데 광채를 드러낸다.

그의 작품 《발레》 Fig. 1는 큰면적의 부드러움 안에 신중한 파랑색, 녹색, 회색의 색역이 있으며 하단 붉은 선은 마치 정적 안에서 평정심을 깨고 움직이는 무용수 동작의 그림자 같다[7].



Fig. 1. Nicolas de Stael, <Ballet>

많은 화가들은 그림 창작과정에서 넓은 면적에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여 창작한다는 것이 확실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는 화면의 여러 위치에서 대비되는 색상을 나누어 화면의 색채 질서를 분산시키며 사물을 나타내고 조화시켰다.



Fig. 2. Paul Cezanne, <The Still Life with a Water Pot>

폴 세잔느(Paul Cezanne)의 《물병이 있는 정물》 중 붉은 갈색의 옷감, 오렌지색의 과일, 왼쪽 아래 각이 노출되어 있는 어두운 갈색 탁자는 서로 호응하고 있고 큰 색역을 분할하여 작은 면적으로 나누어 칠한 곳은 구불구불 흐르는 작은 강의 움직임을 묘사한듯하며 전체적으로 기복이 있으며 변화가 풍부한 가운데 단절됨 없이 열린 느낌을 주어 오래 여운을 느끼도록 한다(Fig. 2 참고).

2.2.2. 색채 특징과 색역 형태

서로 다른 색역의 형태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느낌을 준다[8]. 사각형은 사람들에게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지만 변화가 없고 둔하다. 원형은 움직임과 따뜻함을 주는 동시에 불확실성의 느낌을 동반하여 흐르는 물처럼 빨리 사라지게 하는데 용이하다. 미세한 점들은 눈을 가득 채워주고 함께 쉬기 쉬워서 소홀해질 수 있지만 큰면적의 색역과 대비를 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그림의 주요한 윤곽을 형성한다.

2.2.3 색채 특징과 색역 위치

색채면적대비는 시각적 균형을 나타내는 것일 뿐 아니라 회화 과정 중에 색역의 위치가 갖는 리듬감을 창작해내는데 그 의미가 크다[9].

몬드리안(Piet Cornelis Mondrian)의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Fig. 3을 보면 반듯한 검은 선을 사용하여 그림의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 세 가지 색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괴테가 나눈 순수한 색역 간의 면적의 조화를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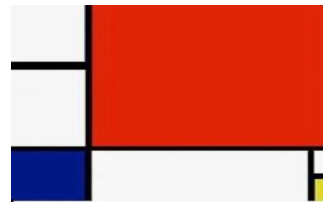


Fig. 3. Piet Mondrian, <There are red, yellow and blue in the picture>

몬드리안의 이 작품에서 획일적인 선은 좌우양쪽을 균등하지 않게 색면적을 나누고 있지만 색채와 그 균등하지 않은 면적들이 오히려 색채 시각의 균형 감각을 만들어내고 있다. 빨강, 파랑, 노랑 삼색의 위치를 보면 작은 면적의 노랑은 오른쪽 아래, 빨강은 가운데, 파랑은 왼쪽 아래로 이렇게 배치된 색채 구성이 색채감각과 조화, 융합의 질량감을 높여준다.

2.3 보색대비와 색채융합

면적대비가 색채의 생명이라면 색채의 상호보완적인 대비는 색채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다. 보색대비는 가장 선명한 색채특징이다[10]. 보색의 출현은 색채에 자극성 물질을 유입한 것과 같고 보색의 배열은 사람의 색채 감각을 기적적으로 빠르게 활성화 시킨다[11].

융합 색채의 그림은 유사한 색의 집합만이 아니고 통

일된 그림 안에서 변화된 대비를 찾아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보색대비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하여금 조화, 균형, 융합을 통해 단조로움을 벗어나게 해준다. 신선한 초록은 붉은색을 전체적으로 장밋빛으로 돋보이게 한다. 매혹적인 푸른색은 종종 오렌지색의 광채를 동반한다.

보색은 색상환에서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먼 거리의 두색상은 화가의 붓을 통해 비로소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약 그들을 같이 섞는다면 서로의 빛이 반사되어서 회색으로 변화된다. 인상파 화가인 에두아르 마네(Édouard Manet)는 “색채의 완전함은 온전히 일종의 취미와 감정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12].

나비파(Les Nabis) 화가 피에르 보나르(Pierre Bonnard)는 섬세한 붓터치로 상호 보완대비를 표현하였다. 작품 《테이블》에서와 같이 전체그림에서 감정조절을 통한 지속적인 보색관계를 형성하여 매혹적인 광채를 발한다.

빈센트 반고흐(Vincent Willem van Gogh)의 회화작품은 보다 강한 보색대비를 이용하여 그렸다. 그는 그림에 힘 있는 붓터치를 이용하여 자연배합의 풍부한 보색관계를 사용했다.



Fig. 4. Vincent Willem van Gogh, <The Caf Terrace on the Place du Forum, Arles, at Night>

고흐는 《밤의 카페》 Fig. 4에 대해, “이 그림에는 6~7종의 다른 붉은색이 있으며 핏빛에서 장밋빛까지와 연 녹색에서 짙은 녹색으로 대비를 진행했는데... .. 나는 빨강과 녹색을 탐구하여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것[13].” 이라고 설명한다. 고흐의 색채리는 한필치의 붓터치에서 색채 간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감정들이 곳곳에 표현되어 있다. 그는 대체적으로 보색의 법칙을 따르고 있고 각 붓터치 과정에서 변화를 조성하여 상호 보완관계를 갖는

다. 이러한 특징상, 고흐 초기작품의 색채는 타오르는 불길처럼 붉고 백합처럼 희다는 점은 깊이 음미할만한 사실이다.

그는 회화 전과정에서 자유롭게 보색대비를 이용하였고 색채로 표현된 정신적인 힘을 보여 주었다. 보색대비의 정확한 사용으로 회화에서 색채융합을 실현하였으며 사람의 색채시각을 반영하여 내재되어 있는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켰다. 그러므로 보색대비는 색채와의 조화를 통해 그 가치가 더욱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14]. 각기 다른 색채구성으로 된 한 폭의 융합색채회화를 감상하는 것은 미적 감각을 얻는 동시에 시각기능을 조절하는 것이기도 되기도 한다[15].

2.4 그림의 정서와 색채 특성

한 폭의 회화에서 표현하는 시간, 분위기, 예술적 정취는 색채와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 또한 색채융합과 분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융합적이다. 밀레(Jean-Francois Millet)의 《만종》은 화폭을 따뜻한 회색톤으로 처리해 충만한 감정을 표현했고 어렴풋한 분위기로 광활한 하늘의 신비를 더욱 강조했다. 피카소(Pablo Picasso)의 ‘청색시대’ 대표작 중 하나인 《두 자매》 Fig. 5(좌)는 차가운 색조화를 보여주고, ‘장미빛시대’ 대표작 《살탄방크의 가족》 Fig.5(우)에서는 따뜻한 색을 구현했다. 《두 자매》의 색채구조는 작가의 침묵과 고독의 세계를 푸른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두 사람의 우의가 사람들에게 삶이 불행과 세태의 각박함 가운데에서 평온하기 어려운 삶의 기조를 들려주는 것 같다[16]. 그리고 《살탄방크의 가족》은 따뜻한 색의 온화함으로 작가의 청색시대가 지났음을 알려주고 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지고 아름답게 변화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Fig. 5. P. Picasso, <The Two Sisters>(좌), <Family of Saltimbanques>(우)

그림의 색채융합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색이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고 색채의 본질적인 자유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가는 색융합과 색채정서의 관계를 적절히 사용해야하고, 기교적인 색채를 통해 매력을 발산시키는데 능숙해야 한다.

3. 결론

이상의 논의에서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색채 융합에 대해 연구하였다. 입체와 추상회화 시대를 거치며 오늘날 색채융합은 더욱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창작활동에서의 색채는 객관적 색의 재현을 넘어 작가 내면을 표현해 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진정한 화가의 울림은 몰감이 아닌 화가의 색채의 문제임 알고 창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I. S. Kim. (2017). The Study About the Artistic Conception of Oriental Landscape Painting. *The Journal of Society for Humanities Studies in East Asia*, 38, 299-317.

[2] J. Itten. (1997). *The Art of Color: The Subjective Experience and Objective Rationale of Color*, John Wiley & Sons.

[3] P. Ha. (2007). Heidegger's Theory of Painting : An Analysis of Van Gogh's <Shoes of the Peasant>. *Researches in Contemporary European Philosophy*, 16, 33-59.

[4] J. Cahill. (1977). *Chinese Painting*, Skira/Rizzoli.

[5] Z. Delong. (1994). *History of Modern Art : H. Harvard.Arnason*, Tianjin people's Arts Development China.

[6] S. G. Ko. (2018). A Study of Modern Metal Craft Using Analytical Formative Beauty of Line and Surfa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337-342.

[7] D. Dingyu. (2005). *Works of Famous Painter: Nicolas de Stael*. Education in Hebei Development.

[8] L. Wenzhen. (2003). *The Spirit of Art:Wassily Kandinsky*. Renmin University of China Development.

[9] Y. S. Lee & J. H. Chung. (2016). Study on the

Scanimation Expression Using Color Schem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451-456.

[10] G. Ballas. (19972). *Couleur Dans La Peinture Moderne*. Adam Biro.

[11] T. H. Lee. (2017). The Study of Expressing Theme by Symbolic Images in Film(Focusing on the Michelangelo Antonioni's film <Blow-up(196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8), 401-407.

[12] Cook. (1981). *The Painting Techniques of the Famous Western Painters*. People's Arts Development.

[13] L. Ding. (1992).*The Story of Art: Sir E.H.Gombrich*. The Heilongjiang Art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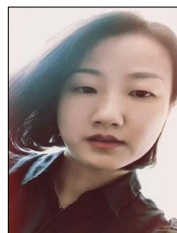
[14] L. Guangyuan. (2003). *The Subject of Color Art*.The Heilongjiang Art Development.

[15] L. Zehou. (1985).*Art Principles: Robin George Collingwood*. The Social Sciences Editions of Chines University Journals Development.

[16] C. Ningshen. (2003).*Modern Master Theory of Art: Picasso and so on*. Renmin University of China Development.

진 연(Chen Juan)

[정회원]



- 2003년 6월 : 중국 후난성 후난사범대학 예술과디자인 전공 졸업 (학사)
- 2007년 6월 : 중국 광둥성 광저우 미술 학원 예술과디자인 전공 졸업 (석사)
- 2007년6월 ~ 현재 : 중국 후난성

상담대학교 예술대학 (교사)

- 2017년9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박사과정

• E-Mail : 280399650@qq.com

서보양(Xu, Boa Liang)

[정회원]



- 2013년 12월 ~ 2017년 2월 : 중국 북주대학교 공예미술대학교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도자, 공예
- E-Mail : 1445336320@qq.com

김 원 석(Kim, Won Suk)

[정회원]



- 1984년 8월 : 목원대학교 산업미술과 졸업(학사)
- 1988년 2월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공예과 요업디자인 전공 졸업(석사)
- 1990년 4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도자, 공예

· E-Mail : wskim@kongju.ac.kr